

# 추락하는 폭스바겐... 수입차도 타격

### 지난달 425대 판매 지난해 대비 85.8% 감소... 아우디·벤틀리 등 다른 모델도 '직격탄'

폭스바겐그룹이 대량 인증 취소 및 판매 금지 사태로 국내시장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대표적 모델인 폭스바겐 판데럼이 급감한데 이어 아우디와 벤틀리 등 다른 모델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폭스바겐 사태 여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만대 판매를 넘어선 수입자동차 시장 전체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한 지난달 수입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폭스바겐 브랜드는 지난달 국내에서 425대를 파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7월 판매량인 2998대보다 무려 85.8%나 감소한 실적이다. 지난 6월(1834대)에 비해서도 76.8%나 줄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국내시장에서 14.5%였던 점유율은 지난달 2.7%로 추락했다. 브랜드 등록 순위에서는 전월 4위에서 지난달 10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9월 폭스바겐의 디젤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터진 이후만 해도 폭스바겐의 실적은 이처럼 처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인판매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난해 11월에는 브랜드 등록 순위 1위에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로 터진 인증서류 조작 파문으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달 내려진 대량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결정이 지난달부터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크게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판매급감은 폭스바겐뿐 아니라 아우디와 포르쉐, 벤틀리 등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계열 브랜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우디의 경우 지난달 등록 순위에서 3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전년 동월(2617대)에 비해서는 42.5%, 전월(2812대)에 비해서는 46.5%씩 감소한 1504대 판매에 그쳤다.

포르쉐도 지난달 308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0.5%, 전월 대비 9.9% 감소했고 벤틀리의 지난달 판매량은 8대로 전년 동월(21대) 대비 61.9%, 전월(31대) 대비 74.2% 감소한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판매급감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인 판매 중단을 실시했지만 월말이었던 데다 이달부터 정부의 인증 취소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아직 판매 중지에도 따른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시장의 3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해온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의 비중을 볼 때 그 여파는 하반기 수입차 시장 전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입차 시장 전체의 판매량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달 수입차 등록 대수는 1만5730대로 지난해 7월보다 24.0% 감소했고 전월(2만3435대)보다도 32.9% 줄었다.



갤럭시 노트7 소비자 체험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의 사전 판매와 동시에 본격적인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물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소비자들이 갤럭시 노트7의 방수 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적 등록 대수 역시 13만247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 539대)에 비해 5.7% 감소했다.

더욱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 중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부터 수입차 시장 판매 감소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시장은 지난해 2만여대를 판매하면서 연간 판매량이 20만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감소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데다 20만대 판매를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다.

운대성 KAIDA 전무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한데 그게 100% 다른 데(수입차 업체)로 가긴 어려운 만큼 결국은 줄어들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8월부터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중지의 진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달 상황을 보면 앞으로 9~11월 판매 추이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 IT업계 올림픽 특집 페이지 운영

### 아프리카TV는 올림픽 생중계도 실시

피우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IT업계는 올림픽 분위기로 한창이다.

지난 5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 등 인터넷기업들은 라우 올림픽 특집 페이지를 운영한다.

이들 기업은 웹과 모바일을 통해 라우 올림픽 실시간 뉴스, 일정 및 결과, 화보, 하이라이트 영상, 메달 집계, 선수 프로필 등을 종합해 보여준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내 '삼(#)' 검색에서도 라우 올림픽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스마트카드사는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교통 승/하차 맞춤형 정보'를 '온(ON)'으로 설정하면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오전6시부터 정오까지 푸시 알림으로 알려준

다. 승차 후 2시간 동안에는 SBS의 모든 유료 VOD를 무료로 보여준다.

'콘텐츠'로 유명한 곱TV는 올림픽 하이라이트 전용앱을 선보였다. 이 앱에서는 KBS, MBC, SBS의 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을 서비스한다. 각종 올림픽 경기 소식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올림픽 생중계, 하이라이트 영상과 VOD서비스를 선보인다. 전문 BI(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채팅이 있는 입담으로 올림픽을 중계하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주역 이상은 선수는 여자 핸드볼 전 경기를 직접 해설한다.

한편, 라우올림픽은 지난 6일에 개막했다. /뉴시스

## 2분기 외환거래 전분기 비 6.7% 줄어

### "외환시장 변동성 줄어든 영향 커...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을 보였던 외환거래의 외환거래 규모가 2분기에는 다소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외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하루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494억4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5억 5000만 달러(6.7%) 줄었다.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1분기 529억9000만 달러로 2008년 1분기(528억5000만 달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거래규모가 사상 최대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여지며,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또 1분기 중국경제 불안, 유가급락 등 국제금융시장 리스크가 높았으나, 2분기에는 다소 완화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억4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억1000만 달러(6.6%) 줄었다.

선물환과 스왑 등 외환파생상품은 29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1억4000만 달러(6.8%) 줄었다. 특히 선물환 중 NDF 거래가 78억5000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8억8000만 달러(19.3%) 줄어 외환파생상품 거래 감소를 주도했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NDF 거래가 감소했고, 이에 따른 파생효과로 통화별로는 원달러 거래, 은행별로는 외은지점, 거래상대방별로는 비거주자 및 외국환은행간 거래도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236억1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5억 1000만 달러(2.1%) 감소했고, 외은지점은 258억3000만 달러로 30억4000만 달러(10.5%) 줄어들었다. /뉴시스

##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 중단

카드사들이 그동안 불안전판매 논란이 있던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롯데카드도 이달 중, KB국민카드도 검토 중이다. 하나카드와 BC카드는 지난달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카드는 DCDS를 판매하면서 고객에 대해 유료인대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DCDS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카드사는 수익성 악화에 따라 신규 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 대포통장 양도·대여자도 징역형 구형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꾸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등 익명의 다중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총책 또는 인출책을 붙잡아야 하지만 '중간 숙주'인 대포통장의 유통 자체를 막는 것도 유력한 방책이다. 대포통장이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용도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총책과 가담자 등에 대한 구형 기준을 상향하면서 통장 양도·대여자로 범법자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통장 양도 및 대여자에 대해

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을 하고 징역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범죄 수사 협의체도 발족했다.

지난 3월 검찰과 경찰,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기획 수사를 주로 하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을 꾸렸다. 현재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내 관련 부서가 대기업 등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시적으로 활동이 둔화된 상황이다.

전문적인 인력 수사 협의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통장을 적극적으로 대여하는 사람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조력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뿌리 깊게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면 새로 통장을 만들어 대여하는 행위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전히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솥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도 있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속아서 명의를 넘겨준 때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재범인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